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라시대 불교 신앙의례의 활성화 상징

1. <삼국유사> 중 가장 짧은 <신주>편
(신주)는 전 5권 9편 138조목으로 된 <삼국유사> 중 가장 짧은 분량(3조목)을 담은 편명이다. 제 1권이 <왕력>과 <기이>(1편)이고, 제2권은 앞 권을 잇는 <기이>(2편)이다. 제3권은 <흥법>과 <탐상>편이고, 제4권은 <의해>편이다. 제5권은 <신주>와 <감통> 및 <피은>과 <효선>편이다. 전체 5권 분량 중 <왕력>, <기이>, <흥법>, <탐상>, <의해>가 실린 1~4권과 달리 제5권에는 가장 많은 편명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138조목 분량 면에서 보면 제5권은 <신주>(3조목), <감통>(10조목), <피은>(10조목), <효선>(5조목)편을 합쳐도 28조목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을 통합한 <삼국유사>의 체제에서 볼 때 일연은 <삼국사기>의 기전체적 체제(本紀·表·雜志)에 견주어 <왕력>·<기이>·<탐상>편을 만들고, <열전>편의 내용을 여러 고승전의 과목에 증광하여 <흥법>-<유통>, <신주>-<신이>, <피은>-<망산>, <효선>-<흥복>, <의해>-<의해>, <감통>-<감통>의 편목을 만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5권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 5권 중 유독 제 5권에 적힌 ‘국존 조계종가 지산하 인가사 주지 원경총주 대선사 일연찬(國尊 迦智山下麟角寺住持 圓鏡冲照大禪師 一然撰)’이라고 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대목이다.

이 저술의 저자가 그의 제자인 혼구 무극(混丘無極名)이라고 알려져 온 것은 한동안 찬자명이 쓰인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찬자명이 적힌 제5권의 인쇄본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 <삼국유사>의 찬자를 일연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음으로써 이 저술의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었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5권의 표기를 통한 저자의 확정은 우리 고대사를 흔하 담담하고 있는 이 저술의 가치와 무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신주>란 편명은 말 그대로 ‘신비한 주문’ 즉 ‘신비로운 진언’이란 말이다. 밀교의 세 가지(身口意)가운데 주문 혹은 진언을 가리키는 구밀(口密)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의 성언량(聖言量)을 문자로 드러내는 가르침인 현교(顯教)와 달리 붓다의 가르침을 비밀스런 의례나 다라니로 전달하는 밀교(密教)는 인도의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습합 과정 속에서 태어났다.

초기밀교는 현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사와 점술 및 주술 등의 여러 가지가 의례가 혼용한 잠밀(雜密)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기 밀교는 불교의 합리적인 업설에 기초한 순수한 밀교(純密)계통으로 볼 수 있으며, 후기밀교는 탄트라 계통으로

흐른 좌도밀교라고 할 수 있다. 밀교는 교학적으로는 반야중관학과 유가행유식학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하여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는 현교를 다시 대중화시켰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성립된 이후의 순밀(純密)에서는 즉신성불(即身成佛)을 목표로 한 출세간의 실지(悉地)에서부터 연명(延命)·식재(息災)·치병(治病) 등 세간실지(世間悉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상과 작법(作法)이 조직적으로 교설돼 있다. 때문에 밀교는 어떠한 지역과 사상 및 역사와 문화와도 어울릴 수 있는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교의 전래(627)에 이어 밀교가 신라에 수용된 것은 진평왕 27(605)에 북천축 오장국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真諦), 농가타(農伽陀)와 마투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등이 와서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해 간행한 것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이 전해온 것은 인도의 초기밀교(잡밀) 사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신주편의 대표적 밀교승 일화
(신주)편에는 해통과 밀본과 명랑이라는 신라의 대표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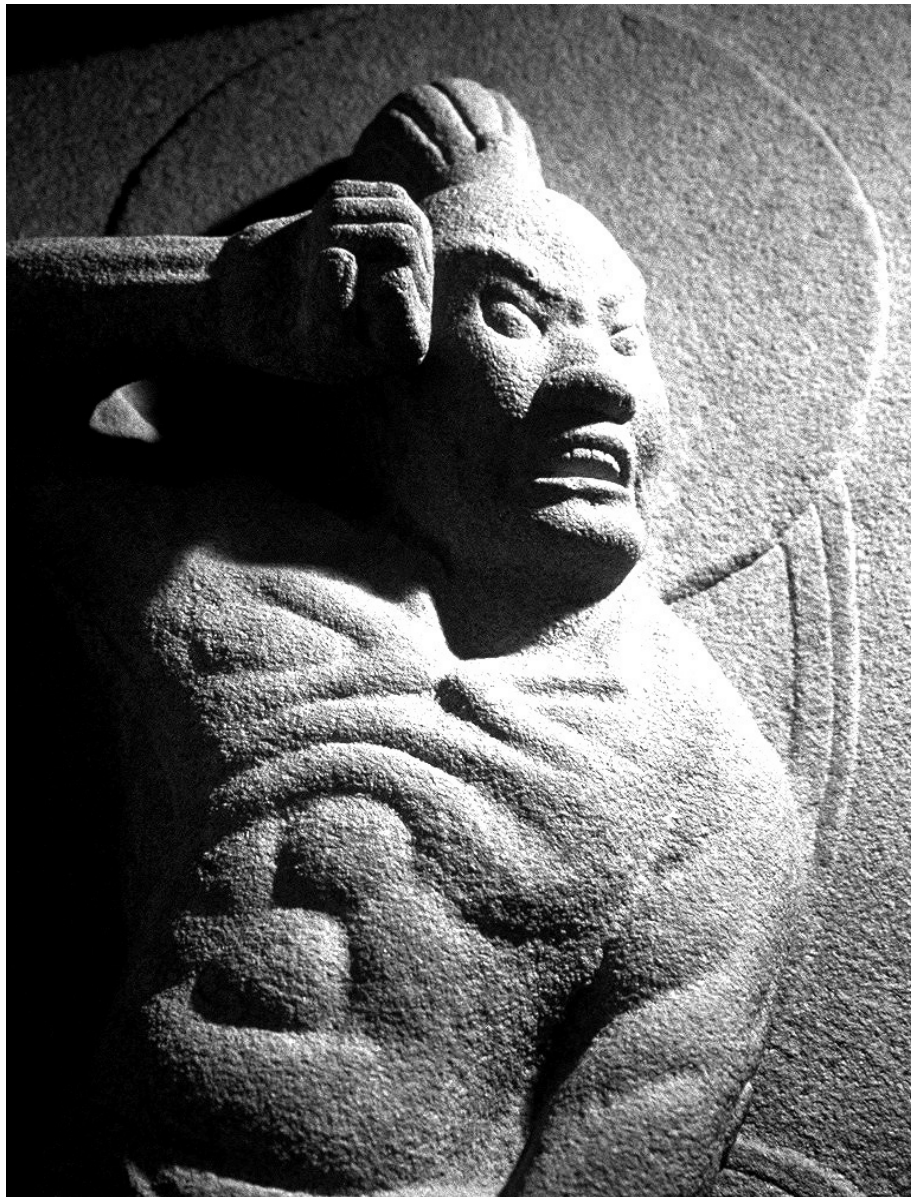
밀본(密本)은 선덕왕대에 활동한 금곡사(金谷寺)의 밀교승이다. 선덕왕 덕만(德曼)

진평왕때 신라에 밀교 전래

해통·밀본·명랑 대표 밀교승

이 오랫동안 병에 걸려 낫지를 않았다. 흥륜사 법칙(法契)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병의 치료를 맡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에 선덕왕은 밀본의 덕행이 온 나라에 소문나 있었으므로 법칙을 대신해 밀본을 궁중으로 맞아들였다. 밀본은 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었다. 경을 다 읽자마자 가지고 있던 육환장(六環杖)이 왕의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가 높은 여우 한 마리와 법칙을 찢러 뜯 아래로 던져 거꾸러뜨리니 왕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때에 밀본의 머리 위로 다섯 색깔의 신비로운 빛이 뻗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당시 승상이었던 김양도(金良圖)는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불고 몸이 굳어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였다. 김양도가 보니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먹는 것이 아닌가. 병을 고치기 위해 무당이 와서 제를 지내면 그 귀신들이 때를



석굴암 금강역사상. 금강역사상에 대한 정식 이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금강상을 '아' 금강역사상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금강상을 '훔' 금강역사상이라고 한다. 밀교에서 '아'와 '훔'은 인체에 에너지의 원형을 뜻하며 이 한 음절에 우주의 본체와 통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석굴암 등 신라불교문화 전에는 밀교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지어 모여들어 무당에게 욕 만했다. 김양도는 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하고 싶었으나 입이 굳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부친이 법류사(法流寺)의 승려를 청해 경을 읽게 하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시켜 쇠몽둥이로 승려의 머리를 쳐 땅에 넘어뜨리니 승려는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다. 김양도의 부친이 안되겠다 싶어,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내 밀본을 초청했다.

보낸 사람이 돌아와 “밀본법사가 우리 청을 받아들여 곧 올 것입니다”고 하자 귀신 무리들은 모두 얼굴색이 변했다. 작은 귀신이 말했다. “법사가 오면 이로울 것이 없으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큰 귀신은 거만을 부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해로운 일이 있겠는가?”

조금 뒤에 사랑에서 모두 쇠로 된 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한 대력신(大力神)이 와서 귀신의 무리들을 잡아 묶어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신들이 둘러서서 기다렸다. 그 후에 밀본 스님이 도착했다. 밀

본이 경을 펼 사이도 없이 김양도의 병은 나아 말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김양도는 불교를 독실하게 믿게 돼 한평생 게으르지 않았다.

일찍이 밀본은 금곡사에 머물고 있었다. 김유신(金庾信)은 연배가 높은 거사 한 사람과 교분이 두터웠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였다. 이때 유신공의 친척되는 수천(秀天)이 나쁜 병에 걸리자 유신공이 그 거사를 보내 진찰해 보도록 하였다. 수천의 친구인 승려 인혜(因惠)가 그 거사를 보더니 엄선(嚴選)하며 말했다.

“그대의 형상과 거동을 보니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인데 어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거사가 말하였다. “나는 김유신 공의 명을 받고 부득이 왔을 뿐이외다.” 인혜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신통력을 보라.” 즉시 향로를 받아들여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자 조금 뒤 오색 구름이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천화가 흩어져 떨어졌다.

거사가 말하였다. “스님의 신통력은 참으로 불가사의 합니다. 제자도 또한 변변찮은 재주가 있으니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잠깐만 제 앞에 계십시오.”

인혜는 그의 말에 따랐다. 거사가 손가락을 한 번 휘는 소리를 내자 인혜는 땅에 박혀 말뚝을 박은 것처럼 우뚝 섰다. 옆에 사람이 밀거나 당겨도 꼼짝하지 않았다. 거사가 떠나기니 인혜는 거꾸로 박힌 채로 밤을 새웠다. 이튿날 수천이 사람을 시켜 유신공에게 알리자 유신공이 거사를 보내 그를 풀러 구해 주었다. 인혜는 다시는 재주 부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밀본과 거사가 보인 신통력은 <관경정>에 의한 약사경 계통의 주술신앙이라 할 수 있다.

명랑은 소관 무림의 셋째아들이었다. 명랑이 632년에서 635년 사이 당나라 유학을 가 밀교를 공부한 뒤 돌아와 자기 집을 희사해 금광사(金光寺)를 세웠다.

무진(668)년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뒤 남은 군사 백제 고도에 웅진도독부를 만들고 체류하며 신라를 습격해 멸망시키려 했다. 이 사실을 안 신라 사람들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웅진도독부를 쳐 없앴다.

당 고종은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 설방

철학 종교에 신앙면모 불어넣어

김유신 상징 전통신앙과도 관계

(薛邦)에게 명해 중국 본토에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 하였다.

문무왕은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명랑을 청해 비법을 써서 이를 물리치게 했다. 명랑은 설방의 50만 원정군이 정주해상(貞州海上)에 침입했을 때 경주 남산의 남쪽 신유림(神遊林)에다 비단으로 임시절(사천왕사)을 짓고 홀로 오랑신상(五方神像)을 만들어 유가(瑜伽) 수행이 뛰어난 12명의 승려를 뽑아 신인비법(神印秘法)을 행하였다. 그러자 양국 군대의 교전이 있기도 전에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당나라의 군함이 모두 침몰하였다. 그 이듬해에도 당나라 장군 조현(趙憲)이 이끄는 5만의 군사가 침입하자 명랑이 역시 신인비법을 개설해 물리쳤다.

이로 인해 명랑은 신라 신인종(神印宗)의 시조가 됐다 하였다. 명랑은 김유신 등을 위해 창건하였다는 호원사(虎巖寺)의 창건 설화와도 긴밀히 연관된다. 이와 함께 고려 창업 때 명랑의 후예인 광학(廣學)과 대연

(大緣)이 태조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해통은 명랑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승려였다. 당으로 건너가 선무의(善無畏, 637~735) 삼장과는 다른 무의(無畏)삼장 아래에서 3년간 물러나지 않고 섬기며 수행하던 끝에 인결(印訣)을 받았다. 이때 고종(649~683)의 공주가 병을 앓자 고종이 무의삼장에게 치료를 청했다. 하지만 삼장은 자기 대신 해통을 천거했다. 해통은 스승을 대신해 공주의 병을 고쳤다. 이때 공주에게서 떨어져 나오며 원한을 품은 병귀(病鬼)가 고통(蛟龍)이 돼 신라로 와 많은 생명을 해쳤다. 해통은 신라로 돌아와 그 고통을 찾아 불살계(不殺戒)를 주어 교화했다. 그는 또 신문왕의 등장과 효소왕 공주의 병을 주술(呪誦)으로 낫게 했다. 이 일로 인해 해통은 효소왕대에 국사가 됐다.

밀본, 거사의 약사경 계통의 주술신앙과 달리 해통은 <다라니집경>의 모방주술(模倣呪術)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통의 주술은 과거세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이는 무속의 해원주술(解冤呪術)과 불교의 인과응보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3. 밀교의 전래와 영향력

초기 잠밀에서 중기 순밀로 바뀐 뒤 후기 탄트라 밀교로 전개된 밀교사상은 동아시아 불교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밀교는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결합과 습합에 의해 형성된 이래 동아시아로 전래되면서 교리적 발전을 도모했다. 특히 해통의 주술은 과거세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이는 무속의 해원주술(解冤呪術)과 불교의 인과응보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현교의 화엄종이 석가모니불(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것에 대응해 밀교는 대일여래(대비로자나불) 즉 범신 중심으로 즉신성불론을 주장했다.

몸을 범신인 우주와 일체시하는 밀교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식되어온 현교에 종교성을 부여하여 신앙의례의 진전과 의례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일연은 밀교승인 밀본과 해통과 명랑의 순서로 신주편을 엮었다. 이러한 순서는 그가 느낀 밀교승의 존재감 순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일연은 특히 밀본과 명랑을 김유신으로 상징되는 전통신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술한 점은 또 다시 주목되는 지점이다.

참고문헌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해)>(2005·2007).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과, <한국사연구> 38, 1982.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연구>(불광출판부, 1994).
정병삼, <삼국유사 신주편과 김유신>의 이해, <신라문화학회논문집> 제 32집, 경주시 신라문화연구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1.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륙배판/컬러

온가족이 함께 읽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불교만화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
정수일 글, 그림/200쪽/12,000원

조선왕조 500년 승유역사의 암흑 속에서 선의 등불을 밝혀 선종을 떨쳐 일으킨 한국 선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삶과 생애를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정수일 글, 그림/188쪽/9,800원

해동의 성자로 불리며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이자 세계적 저술가, 한국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로 꼽히는 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을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208쪽/9,000원

부처님은 전생에 강인한 용기와 지혜, 인내와 끈기, 자비와 희생정신 등을 보여주시는데,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간추려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정수일 글, 그림/200쪽/12,000원

투철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시인,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주창한 불교사상가, 만해 한용운의 치열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만화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왕눈이 스님
정수일 글, 그림/단도/246쪽/7,800원

서산대사의 범용을 이어 한국불교의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연기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보살행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국 사찰의 실화와 전설 1, 2
이규성 글, 그림/각 246·200쪽/각 10,000원

전국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실화와 전설을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불보살님의 가피,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 신비하고 기이한 이적 등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려진다.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정수일 글, 그림/183쪽/10,000원

임진왜란의 참화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사명대사의 승려로서의 삶과 승병장으로서의 삶을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게 그려냈다.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168쪽/9,800원

부처님께서는 재미있는 우화형식의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은 어린이들이 보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정수일 글, 그림/206쪽/9,000원

백 가지 비유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는 『백유경』을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